‘대북제재 이행’ 압박 속 평양길 오르는 재계 총수

당장 투자결실 보단 경협 ‘씨뿌리기’ 장기포석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등 포함
“통신·에너지·건설 기대할 만”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거 참여함에 따라 남북간 가시적 경제협력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지난달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북미관계가 다시 얼어붙는 등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어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수행원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남북 경협과 대북사업에 무게를 둬 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코레일 및 한국관광공사 등도 함께한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대신 참석한다.

특히 처음으로 방북길에 오르는 총수들에게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며 사실상 처음으로 정부의 경제사절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방북길에 오르면서 가전 등 전자사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 협력과 자금 투자 가능성도 어느정도 점쳐지고 있다.

구광모 LG 회장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6월 부친인 고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LG그룹 지주사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한 구 회장의 공식 데뷔무대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4대그룹 총수들 중에서는 맏형인 최태원 SK회장은 2007년 2차 남북정상 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이번 방북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SK그룹은 남북 경협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사업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재계 총수들이 평양으로 집결하지만 당장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물자나 설비를 반입하는 내용을 결정하긴 힘들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 경협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투자보다는 향후 기대감이 높아진건 사실”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현실화 할 경우 우리도 북한에 투자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통신과 에너지, 건설 분야에서는 기대할만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첫 만남에 이같은 사업을 논의하는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 “기업인들의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며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제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와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 나올 지 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경의·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재개… 항만 개발… 건설社 ‘장밋빛’

남북경협에 건설업계 활기

기대감에 건설업종 주가 상승세
HDC 3.49%, 대우건설 1.61% ↑

지난 13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업계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번 회담으로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르면 인접지역 수혜를 비롯해 기반시설 건설 등 낭보가 기대된다.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오히려 규제 변수가 줄어든 점도 건설업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8~20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선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특히 경의선·동해선 연결 사업, 개성공단 개발, 항만 재개발 등의 논의가 예상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비용 절감, 해외 수주 저하 등 좀처럼 호재가 없었다. 이 가운데 북한 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창출할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이 최근 발간한 ‘남북경협에 대한 실체적 접근’ 보고서에서는 “남북경협 초기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철도, 도로, 항만, 전력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될 것”이라며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신규수주 부진, 국내 주택사업의 피크 아웃 우려 등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신규 시장 창출은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감에 건설업종 주가도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다.

KRX건설업종 지수는 전달 대비 2% 이상 오름세를 타고 있다. 남북경협주가 치솟던 올해 초와 비교하면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종가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전날 대비 3.49% 올랐다. 이어 대우건설이 1.61%, 두산건설 1.15%, 대림산업 0.96%, 태영건설 0.74%, GS건설이 0.19% 상승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관련 기업들과 인접 지역의 부동산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남북정상회담 이후 업계를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관련 종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 상반기 시·군·구별 땅값 상승률을 보면 경기 파주시가 5.6%로 가장 많이 올랐다. 남북관계 개선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개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2위는 4.21%가 오른 강원 고성군이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거론되며 북한과 연결되는 동해선의 제진역(驛) 주변 등 접경 지역 땅값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시장에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활성화, 접경지 주변 경제 교류 등 남북경협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구체화되기까지 거쳐야할 과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지 시장 쪽은 북한 접경지인 파주, 강원 일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최근엔 움직임이 크지 않다”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구체화되기 전까지 큰 움직임이 없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규제가 예상보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도 건설업계엔 호재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되풀이되는 정책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9·13 대책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한 게 골자다. 주된 내용은 ▲고가 주택·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 인상(최대 3.2%), ▲다주택자·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매입자·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수도권 공공 택지 개발 등이다. 특히 이번 대책엔 서울 상업지역의 주택중심 재개발 계획까지 포함돼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채신화 기자 csh9101@

北, 식량·의료환경 열악… 의약품·농기계 기업 혜택 받을 듯

>> 1면 ‘J노믹스 北으로 가다…’서 계속

2014년 금융위원회의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에서 북한의 인프라 개발 비용을 철도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로 산업육성 비용으로는 농수산업에 27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가장 먼저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철도·건설·도로·철강 등 사회간접자본(SOC) 업종이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인프라·건설 산업을 북한 재건과 남북경협의 시작 분야로 꼽았으며, 향후 남북경협의 주요 기반은 에너지 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식량이나 보건 분야도 관심대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중 북한의 식량난 개선을 위해 농업 복구 지원 비중이 높았다. 2008년 이후에는 보건의료 지원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북한의 식량과 의료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이나 비료·농기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녹십자, 대동공업, 남해화학 등이 혜택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간 신뢰가 일정 정도 구축된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등 새로운 영토에서의 협력도 가능해 보인다. 남북경협 분야와 관련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10년 전 처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하자원 활용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문호 기자 kmh@

文 대통령, 평양방문 첫날 특별공연 관람

만찬서 가수 지코·에일리 등 공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째 날 저녁 관람하게 될 환영예술공연의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첫날 일정과 관련 “늦은 오후에는 환영예술공연을 관람하고 이어서 환영만찬이 계획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연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남측 정상의 평양 방문을 환영하는 특별 공연임을 고려할 때 내용과 형식에서 각별히 신경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문 대통령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앞서 8~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방북했을 당시에도 만수대예술극장에서 환영공연을 열고 리 상무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환영공연에 이어 열리는 만찬에서는 특별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수 지코,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씨를 비롯해 이날 수행단에 추가 합류한 가수 알리와 마술사 최현우씨 등이 답례 형식으로 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